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탁월한 령군술로 정형고지전투를 승리적으로 이끄신 현명한 령도

전 영 애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 승리,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수령님의 뛰어난 군사적지략과 세련된 령군술의 빛나는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첫 시기부터 전략적시점에서 공격과 후퇴, 방어, 능숙한 결합, 하나의 작전을 조직함에 있어서도 그 작전이 다음작전에 미치는 영향, 그 모든것이 적의 전략적기도를 짓부셔버리는데서 차지하는 의의를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로 이끄시였다.

주체42(1953)년 1월 25일에 진행된 정형고지전투도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에 의하여 승리한 조국해방전쟁의 수많은 전투중의 하나이다.

전선중부 철원서쪽에 있는 정형고지는 지도에도 표기되어있지 않는 해발 200m 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야산이다.

정형이라는 말은 산의 룡선모양이 곰배처럼 생겼다 하여 고지를 방어하고있는 인민군용사들이 한문자의 곰배정(T)자를 따서 부른 고지이다.

적들은 그것이 제놈들의 글자로 티(T)자처럼 보인다고 티형고지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세계군사전문가들속에서 풀수 없는 수수께끼로 물음을 던지고있는 정형고지전투, 전투가 있기 몇시간전까지만도 얼마 안되는 력량밖에 없었던 이 고지전투에서 어떻게 되어 몇배의 력량으로 여러차례의 가상훈련까지 한 적들을 타승할 수 있었겠는가,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고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그것은 백전백승의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정형고지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무엇보다먼저 정형고지전투의 정치적목적과 군사적의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만일 아이젠하워의 첫 시도에 큰 타격을 준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자리에 들어앉은지 오래지 않은 그의 뺨을 후려갈기고 적진내부의 모순을 격화시키며 조국의 통일독립을 촉진시키는것으로 될것이며 군사적으로는 조선전선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고 미제침략군에게는 서산락일의 운명을 가져다주게 될것입니다.》(《김일성전집》 제15권 292~29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형고지전투가 우선 정치적으로는 새로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 아이젠하워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동맹국들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켜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 전투로 보시였다.

2년나마 진행한 침략전쟁에서 심대한 군사정치적참패를 당한 미제는 워싱턴의 멧렁구리라는 별호가 붙은 트루먼을 내쫓고 1952년말에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자리에 앉혔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을수 있는것은 제놈이 대통령이 되면 조선전쟁을 《즉시 종식시켜 미국인의 희생을 덜어 주겠다.》고 공약하였기때문이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을 당시 조선전쟁의 형편은 미국에 매우 불리

한 상태에 있었다. 군사적으로는 감은절공세, 크리스마스총공세, 하기 및 추기공세, 김화공세 등 여러차례의 공세에서 련전련패를 거듭하고있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정전담판에서 《영예로운 정전》은 고사하고 망신만 당하고있었다.

세계평화애호국가들은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한시바삐 손을 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동맹국들도 전쟁초기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있었다.

아이젠하워는 조선전쟁에서의 미국의 현실태에 대처하여 새로운 타개책을 세움으로써 트루먼과 전혀 다른 자기의 모습을 세계앞에 보여주어 저락된 미국의 위신과 동맹국들로부터의 모순을 해소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야심으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즉시 자기의 선거공약을 실천에 옮긴다고 하면서 1952년 12월 2일 극비밀리에 남조선에 날아와 전략회의를 한다, 군부상층들로부터 전면공세계획을 청취한다 하며 분주탕을 피우며 오만하게 돌아섰으며 미국에 돌아가서는 제놈의 이름을 단 아이젠하워의 《신공세》계획까지 발표하였다.

아이젠하워가 《명성》을 떨치려고 하는 《신공세》작전의 서막이 바로 정형고지전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로부터 정형고지전투가 비록 발기자가 《철의 삼각지대》 정면방어를 맡고있는 미7사 사단장이고 지휘자는 8군사령관 벤플리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되는 아이젠하워를 축하하는 《선물》로, 대통령의 오만성과 거만성, 도고성을 시위하는 첫 전투로, 신임대통령이 지휘하는 모든 작전의 신빙성을 불어넣어주어 동맹국들로부터의 고립을 해소시켜보려는 아이젠하워의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는 작전이라고 판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형고지전투가 또한 군사적으로는 미제의 《신공세》기도를 짓부시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투로 된다고 보시였다.

아이젠하워의 이름을 단 《신공세》란 크게 두개 방안이였다.

그 첫째 방안은 공화국북반부의 후방지역에 대한 수륙병진작전 및 공중으로부터의 특전대투하와 함께 현 전선에 대한 돌파작전으로 북위 40°선을 따르는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는것이며 둘째방안은 비행대와 해군무력에 의한 중국본토에 대한 공격과 중국해안에 대한 봉쇄 및 장개석특무들에 의한 중국후방의 교란 등을 첫째방안에 첨가하여 감행하는것이였다.

《신공세》계획에는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조선에서 전술적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는것이 포함되였다.

당시 《신공세》작전에 아이젠하워는 남조선에 있는 50여만의 《유엔군》외에 보병, 특전대, 해병사단들과 각각 2개 사단의 남조선피퇴군과 장개석군대, 12개 대대의 야포, 20개 대대의 고사포부대를 비롯하여 도합 9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기로 계획하고있었다. 이것은 웅근 한차례의 대전을 치르고 전쟁을 또다시 장기전으로 끌고갈수 있는 방대한 무력이였다.

아이젠하워의 《신공세》계획의 최종목적은 전조선과 중국을 공격함으로써 제3차대전을 일으키는것이며 군사적인 목적을 다는 실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민군대에 대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전담판에서 제놈들의 부당한 요구조건을 실현하고 《영예로운 정전》을 달성해보려는것이였다.

아이젠하워는 《신공세》작전을 실천에 옮기는데서 기본을 지상돌파전과 해상상륙작전의 병진에 두었으며 거기에서도 특히 여러차례의 군사적공세에서도 목적을 이루지 못한 강도에 의거한 인민군대의 지상방어선돌파를 가장 중시하였다.

아이젠하워는 이 지상돌파전의 가능성 여부를 《스맥크작전》이라고 하는 정형고지전투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적들은 이 《모범전투》의 중요성으로 하

여 정형고지와 류사한 고지에서 9차례나 공격훈련까지 하였으며 전투장소와 날자를 절대비밀에 붙이고 전투현장을 취재할 기자들에게도 작전개시 몇시간전에 알려주는 등 면밀한 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처럼 전투는 사전에 면밀히 준비된 반드시 《승리》하여야 하며 또 그 《승리》가 약속된 말 그대로의 《모범전투》였다.

만약 정형고지전투가 적들의 《승리》로 끝난다면 아이젠하워는 신심을 가지고 《신공세》작전에 달라붙을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이 노린 정형고지전투의 목적으로부터 이 전투가 하나의 지역사수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적종결과 직결되어있는 정치군사적의의가 큰 군사작전이라고 보시였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적들의 정치군사적기도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형고지전투를 한개의 군단이나 군사령관에게 위임하지 않으시고 최고사령부가 직접 지휘하도록 하시였다.

정형고지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다음으로 탁월한 작전안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직접 지휘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형고지에 대한 적들의 움직임을 보고받으신것은 전투가 있기 12시간전인 주체42(1953)년 1월 24일 오후 5시였다.

작전회의 당시까지 정형고지에는 1개 연대 정도의 인민군대력량이 방어임무를 수행하고있었으며 적들은 이 고지에 미7보병사단을 비롯한 3개 사단 그리고 비행대, 탱크, 대구경포들을 투입하려고 하였다.

작전회의에 참가한 총참모부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최소한 2개 연대를 더 증강해주던가 아니면 적들을 유인하여 밖으로 끌어낸 다음 좌우측에서 타격하자는 전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군들이 제기한 전술안은 거의

불가능한것이였다.

정형고지가까이에는 이동시킬 병력이 없었고 적들을 유인하여 끌어내는것도 절대적인 시간이 모자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사학적으로만 문제를 분석하고있는 지휘관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시면서 우리 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에 기초한 립기웅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책안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력량은 적지만 군인들에게 최고사령부의 의도를 잘 알려주어 그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견고한 강도진지에 의거하여 싸운다면 적들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고 고지를 지켜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시 우리 인민군병사들은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어줄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강도들을 반항공, 반화학, 반전자, 반핵으로 꾸려 적들의 그 어떤 방식의 타격에도 견딜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이러한 튼튼한 방어에 의거하여 높은 화력밀도를 보장하면 전투의 승리는 확정적인 것으로 된다.

군사적으로 볼 때 싸움의 승리는 높은 화력밀도에 있으며 거기에서 기본은 포이다.

그런데 정형고지에 포화력을 증강하자면 고지로부터 100~200리 떨어진 곳에서 포를 기동시켜야 하였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적들의 공격개시가 25일 새벽 5~6시경으로 예견되는 조건에서 우리의 증원부대는 적어도 밤 12시나 새벽 1시까지에는 예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였다.

보병들이 무장장비를 갖추고 100~200리를 5~6시간동안에 기동하는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기동조건이 불리한 겨울에 그것도 야간에 포들을 움직인다는것은 일반 군사상식으로서의 거의 불가능한것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2시간이

라는 압박감과 불리한 기동조건으로 당황해하는 인민군지휘관들을 안심시키시면서 어느 부대를 어느 로정을 따라 기동시킬 것인가를 잘 선정하면 능히 지정된 시간 내에 가능하며 또 이 시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는 우리 인민군전사들을 굳게 믿으시고 즉석에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전의 성과적수행과 앞으로 전투정황을 예견하여 그 실현을 위한 방도까지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꺼번에 수많은 포들이 기동하는 조건에서 포병부대의 진출과 전개과정에 기동기재들의 불빛위장과 소리위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특히 전개구역에서 최대의 은밀성을 보장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명령을 하달하신 그 시각부터 작전대앞에서 온밤을 지새우시며 포병부대들의 기동을 로정을 따라가시며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동하는 부대들의 진출계선을 알아보시고 작전도에 표식해나가시였으며 어느 계곡의 강물은 어떻게 건드며 어느령길을 넘어갈 때에는 무엇을 주의하며 도로가 좁은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길을 우회도로로 리용해야 하는가 등 기동과정에 있을수 있는 정황과 예상치 않았던 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하나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뛰어난 선견지명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수백문의 포들이 새벽에 지정된 계선에 진출하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

1월 25일 새벽 항공대의 폭격으로부터 《스맥크작전》을 시작한 미제는 발악적공세를 취하였지만 강력한 갱도전과 포병전에 의거한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투쟁에 의하여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미군의 《모범전투》는 실패하였으며 또다시 세계면전에서 툭툭히 망신만 당하였다.

정형고지에서 《스맥크작전》의 파탄은 미국에서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아이젠하워는 1월 29일 비밀리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사태수습과 차후대책강구에 급급하였으며 《워싱턴 포스트》지는 만일 《신공세》를 벌린다면 5만내지 그 이상의 주검을 낼것을 각오하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량면에서 협격을 받고 최후의 한사람까지 소탕당할 위험이 있다.》고 아우성을 쳤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전략적안목과 탁월한 령군술에 의하여 마련된 정형고지전투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아이젠하워의 《신공세》기도를 파탄시키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마련하신 전승의 업적은 오늘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미국이 지난날 조선전쟁에서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를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야말것이다.